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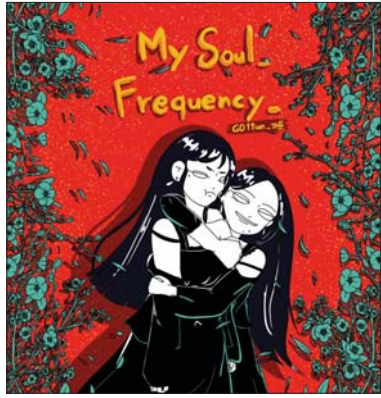
전주시 7급공무원, 어쿠스틱 선율 앨범 발매

최훈 씨 아티스트명 '가툼', 첫 앨범 'My soul frequency' ... 내년 초까지 5곡 선보일 계획

'가툼(Gottum)'이 바닐라 셔벗처럼 달콤한 어쿠스틱 풍의 첫 앨범을 발매한다. 가툼은 전주시 호성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7급 공무원 최훈(39)씨의 아티스트명이다. 퇴근 후나 주말과 휴일, 틈틈이 짬을 내 재능을 발휘했다. 본인이 직접 작사와 작곡, 편곡까지 맡았다. 노래는 객원 보컬을 통해 완성했다. 첫 앨범은 'My soul frequency'라는 주제다. 첫 곡 'Run'은 이달 중에 선보인다. 깊은 곳 응어리진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두 번째 곡은 다음 달에 발매가 확정됐고, 내년 초까지 다섯 번째 곡까지 내용을 계획 중이다. 최씨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다.



최훈



가툼 첫 앨범 'My soul frequency'

중·고교 때는 피아노를 치면서 스스로 작사와 작곡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재능을 대중

앞에 선보인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최근 마음이 움직였다. "뭔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뛰어난 실력은 되지 못하지만 누군가, 그 만을 위한 음악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부끄럽지만 많이 분들이 제 음악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평화, 사랑을 찾고 느끼길 바랍니다." 최씨의 별명은 '독도선생'이다. 태생은 부산인데, 대구, 충청, 서울, 전주 등으로 이사를 다니며 살아보니 전국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사투리를 쓴다. 그렇게 특이한 말투가 독도에서나 쓰는 말이란 뜻이 담겼다. 앨범 발매 전부터 그의 팬을 자처한 전주시 의회사무국 김소윤씨는 "평소 일 잘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만 알았는데, 앨범까지 낸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집 발매 전에 들어온 타이틀곡이 매우 감미로워 벌써부터 그 다음곡과 2집 앨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7월~12월 12일까지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한국 대표작가 45명 작품 60여점 전시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미술관 지원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립미술관 협력 전시사업'이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립미술관은 9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된 기획전시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큰 줄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남향집' 작가 오지호, 도상봉, 김기창, 이종섭, 변월룡, 장육진, 김환기, 이우환, 권인식, 김구림, 이강소 등 한국 대표작가 45명의 작품 60여 점이 출품된다. 전시구성은 시대별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눠 근현대미술사의 구간을 이루는 1930~40년대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1전시실은 '근대미술을 꽃 피우다'를 주제로 1930년대부터 1950년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 이후 일본 유학파들의 서양화풍 경향과 1920~30년대 한국의 서정성과 향토성을 담아낸 인물화, 풍경화, 산수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2전시실 '추상미술을 실험하다'에서는 1950년대 현대미술 맥락 속에서 시작된 추상미술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김환기, 유영국, 하인두, 박서보 등의 작업으로 전개되는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장육진 '마을'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아우르는 3전시실은 '매체예술로 확장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두꺼운 채색 표현을 표방하는 화풍과 반하는 차가운 기하학 추상을 비롯해 탈 평면, 오브제, 설치, 퍼포먼스 작업의 경향이 두드러졌던 1970년대 미술을 만나볼 수 있다. 또 1980년 리얼리즘 회화와 1990년대 이후 백남준, 박현기 등의 비디오 작업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개인 소독제 구비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정해진 동선으로 관람할 수 있다. 단체이용(관람)과 전시 해설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과 현장 발권을 통해



김환기 '초가집'

이용자를 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 가능하며(오후 5시 입장 마감)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정읍 시민은 2,000원, 지역 외 거주자는 5,000원이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김환기, 오지호, 이종섭 등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주요 작가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잠시나마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독서의 달 '독서문화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 도서관 12곳서 전시·특강·체험 등 온·오프라인 운영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 곳곳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9월 한 달 동안 도서관 12곳에서 도서 전시, 작가 특강,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연체자 해방의 날'을 운영해 9월 한 달 동안 연체도서를 반납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대출정지를 해제함으로써 연체도서 반납을 장려하고 도서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삼천·효자·죽구름도서관에서는 도서 전시가 진행된다. 취미, 건강한 식단,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이 운영된다. 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해 작가 특강과 인문학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그림책 한 권의 힘(이현아)-전주시립도서관 '꽃심'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 설계(서상덕)-서신도서관 ▲삼야산책(冊), 내 인생의 작가(김나연)-건지도서관 ▲내 책 내고 스스로 작가 되기(황보윤)-효자도서관 ▲

떠남의 미학, 여행 문학의 세계(김완준)-효자도서관 ▲일본문학으로 말을 걸다(신현선)-아중도서관 ▲삼주작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문학이다(하미숙)-아중도서관 ▲즐거운 책 육아 놀이 비법(우기운)-평화도서관 등이 준비됐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행사로 ▲오늘의 시, 내일의 문장-아중도서관 ▲찾아기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아중도서관 ▲내 손으로 그리는 동화 일러스트(배혜림)-완산도서관 ▲나만의 책 만들기(강영규)-완산도서관 ▲동극 우리는 지구환경 지킴이(동화나라 연구소)-건지도서관 등도 기획됐다. 프로그램 일정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계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비대면,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의 날 한국민속촌 현장 이벤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4일 태권도의 날을 맞아 한국민속촌과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민속촌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복 착용자 및 단증 소지자에 대해 자유이용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특히 태권도의 날인 4일에는 태권도인 인기 콘텐츠인 '송관 격파 체험'을 한국 민속촌 곳곳에서 진행한다. 태권도원 캐릭터인 태랑과 진진 탈을 쓴 인형이 한국민속촌 곳곳에서 활약하며 태권도의 날을 알린다. 이와 함께 관람객을 대상으로 태권도원 할인권 및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태권도원과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민속촌 현장 이벤트와는 별도로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원 무료 입장'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용매 마케팅부장은 "속촌에서 대한민국 국기의 법정 기념일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도복을 입고 한국민속촌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송관을 직접 격파해보는 경험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9월 4일 태권도의 날 '태권도원 무료 입장'과 '한국민속촌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김정배 글마음조각가 원손그림 전시

완주군(군수 박성일) 대표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글마음조각가 김정배 작가의 원손그림 전시가 열린다. 2일 완주군은 11월 21일까지 김정배 작가의 원손그림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어리병방 흥황(惚恍)'을 주제로 다목적공간 1, 2층에서 열리고 있으며, 전시 주제가 된 <흥황(惚恍)-어리병방환의 힘>을 비롯해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 <한 뼉 취미> 등 왼손으로 그린 작품 32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관 곳곳에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 중인 김정배 작가의 작가노트가 함께 소개되어 전시 감상에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김정배 작가는 "원손은 어린아이다. 시(時) 그 자체"라고 언급하며 왼손으로 그려낸 독창적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완미너 문화관광과장은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현대 미술 작품을 활발하게 소개할 예정이다"며, "지역작가를 비롯한 문화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